

**일본 공공주택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 1950년대의 DK형 표준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in Japanese Public Dwelling

- Focused on DK type Standard Plan during 1950s -

김진모* / Kim, Jin-Mo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Modernization of the public dwelling focused on DK type standard plan during 1950's. in Japan. Shortage of the dwelling stated after World War II, inferior housing environment, required the re-reflection of a dwelling and a life system succeeded to traditionally. As a result, it was going to solve a principle application of a new life style for a demand of a development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through DK type standard plan. Although it was thought that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public dwelling Japan had aimed at Westernization, it turned out that modernization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peculiar housing culture system of Japan. As for it, in the planning stage of DK plan, although known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pace for which the Western-like element was generally accommodated by modernization processes, such as closing-izing of space, and specialization of a function, generally, succession of a traditional element and a modernistic change of that are seen.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Westernization was transcended and peculiar localization of Japan was fixed.

키워드 : DK형 표준설계, 근대화, 일본화

Keywords : DK type Standard Plan, Modernization, Loca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전쟁의 재해에 따른 주택의 절대적 공급 부족, 1950년 초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의 영향, 공업화와 경기의 상승에 따른 도시의 인구 집중, 또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공영주택, 일본주택공단등의 공적 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과 현실화의 역할을 이어와서, 많은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공 집합주택이 당시의 일본사회에 공헌한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전후 초기의 전쟁 부흥기부터 경제성장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제안되어 이룩고 일본 주거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 DK형의 생활방식과 그 주택은 도시주택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으며 농촌주택에까지 일본 주택의 모습을 바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DK형 주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택영단에서 연구가 되어왔고 전후에 전후 부흥기를 거쳐 50년도 중반 일본주택공단이 창립¹⁾되면서 비로소 실용화 되었다. 이러한 DK형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의 방법을 제안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평면이 전통적 생활을 고려치 않고, 서구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아파트 단위평면의 근대화가 주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위평면을 중심으로 공간의 특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DK형 표준설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전후 부흥기 당시 근대화로 성숙해가는 전환기적 시기의 DK형 표준설계에 대한 이해와 해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1950년대 중반 고도경제 성장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었던 일본 공공주택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계획 이론에 근거해 계획된 평면과 공간의 실제적 사용의 해석 사이의 문제 해결에 좋은 사

* 정회원,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 본 논문은 2005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일본주택공단은 당시 鳩山内閣에 의해 그 정책의 실시기관으로 昭和30년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도시기반정비공단

레가 되며,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인 일본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시대적인 흐름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다소 뒤져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본의 공공주택의 근대화과정은 한국의 집합주택의 앞선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거형식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상호간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본의 근대 주택 계획에 관하여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45년 종전 후부터 공단이 발족된 고도경제 성장기까지 즉, 전후 부흥기²⁾(1945~1955년)이며, DK형 성립에 기여한 대표적인 계획안인 건설성 공영주택 51-C형 표준설계와 주택공단의 초기의 DK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55-4N-2DK형³⁾(이하 55-N형으로 표기함) 표준설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공영주택에 식사실 겸 부엌으로서 이타노마⁴⁾(板の間)를 채용하게 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은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타치(足立 孝)의 「공영주택의 이타노마에 관하여」, 스즈키(鈴木成文)의 「RC아파트의 食寢生活에 관하여」, 기무라(木村幸一郎)의 「동경도 콘크리트 아파트의 생활방법조사」 등 생활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건 51-C형 표준설계와 일본주택공단의 2DK형의 표준설계를 중심으로 DK공간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의 대량공급, 설비의 서구화(위생공간)등 주로 DK 공간에 관한 내용이며 사용실태가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일본의 집합주택에 관해, 평면 유형 등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는 1945년 이후의 집합주택의 전개과정에서 전후 부흥기의 집합주택의 대표적 예로서 건설성의 51-C형 주택을 소개하는 정도이며 일본주택 공단의 표준설계 55-2DK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DK형 표준설계에 내포하는 공간적인 특성, 성격은 공간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면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는 단지 DK형 표준설계의 공간적 성격의 규명뿐만이 아닌 주거 공간의 근대화⁵⁾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며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1-C형으로 부터 55-4N형의 표준설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공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근대화의 개념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2)鈴木成文, 住まいを読む-現代日本住居論, 建築資料研究社, 東京, 1999, pp.9-12

3)55-4N-2DK형에서 55는 1955년도 주택공단 표준설계를, 4N은 건물의 층수를 나타내며 2DK는 2개의 침실+식사실(D)·부엌(K)을 의미한다.

4)바닥의 재료에 마루를 깔아놓은 실.

5)鈴木成文은 일본에 있어서 주택의 근대화는 서구화라고 말하고 있다.

서구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DK형 표준설계에 융합되는 과정을 당시의 생활방식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DK형 주거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DK형 표준설계의 근대화

2.1. 표준설계의 형성과정

일본 건축의 근대화는 明治⁶⁾초기의 서양건축의 도입과 모방에서 시작된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축에 대한 사고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거도 마찬가지로 지이었으며, 근대화 과정의 특징은 일본식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 일본식과 서양식의 통합의 추리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경제의 고도 성장기 이전까지는 주거와 생활양식의 근대화는 형태적으로 서구화 내용적면에서는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측면의 근대화와 형태, 경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자적인 사상이나 원리 없이 서구 또는 미국의 주거와 생활형태의 모방이라 볼 수 있다.

전후 당시 일본은 주택부족현상에 대응하기위해 1가족1주택을 보장하기위해 가족규모와 주택규모를 고려하기보다는 주택호수의 충족을 우선시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전후 재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주거양식에 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후의 부흥이 일단락하고 건설성에 의한 공영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건설성은 주택의 대량생산의 방법이 요구된 당시의 상황에서 표준설계를 개발해 그것을 공영주택에 채용하게 된다. 표준설계는 공영주택의 실제 건설을 위해 기술력이 없는 지방의 자치단체도 건설을 할 수 있게 고려하여 지방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질을 유지한 주택의 대량 공급⁷⁾이었다. 건설성에서 매년 표준설계가 만들어졌고 그 도면과 사용서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표준설계의 제3년차에 해당되는 1951년에는 DK형의 채용에 의해 새로운 전형을 낳았으며 그 후의 일본주택 계획을 크게 방향 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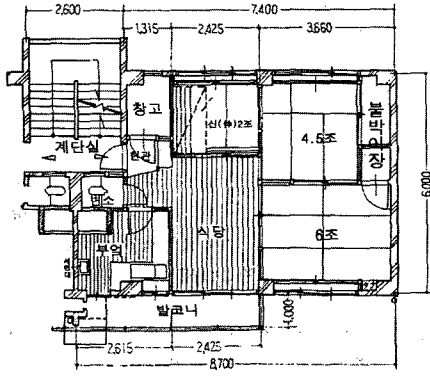
이러한 DK형 표준설계의 작성에는 다수의 건축가, 연구자, 행정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DK형 표준설계는 51-A형, 51-B형, 51-C형의 3개의 평면이 계획되었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보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면적이 가장 작은⁸⁾ 니시야마(西山夕日三)의 연구의 영향을 받은 요시다테(吉武泰水)와 그 연구실의 젊은 학자들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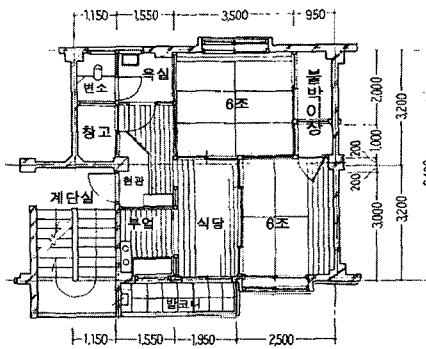
6)明治: 1868년-1911년

7)鈴木成文, Op. Cit.,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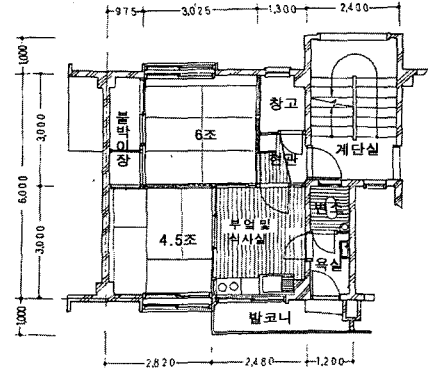
8)51-A형의 면적:48.76m² (약14.78평), 51-B형의 면적:42.37m² (약12.83평), 51-C형의 면적:35.52m² (약10.76평)



<그림 1> 51-A형 평면도



<그림 2> 51-B형 평면도



<그림 3> 51-C형 평면도

해 계획된 51-C형이 채용되어 표준설계가 만들어졌다. 이 표준설계는 2DK의 원형으로서 후에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공영주택의 표준설계인 51-C형은 식사와 취침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소규모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주택계획과 주생활의 양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평면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일본주택공단의 표준설계도 51-C형과 같이 침식분리를 전제로 표준설계에 반영하여 계획하였다. 다이닝·키친이라는 이름은 그 후,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다. 또한, 2개의 침실에 다이닝·키친이라는 의미로 공간이 이용한다 2DK라는 기호가 공동주택의 대명사로서 전파되었고, 아파트 내부공간에 하나의 개념이 일본에서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은 51-C형과 55-N형 표준설계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적에서는 55-N형이 약 2평 정도 넓으며 주동의 규모나, 공간의 구성은 양쪽 평면 모두 2DK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사하다.

<표 1> 51-C형 표준설계의 55-4N-2DK 표준설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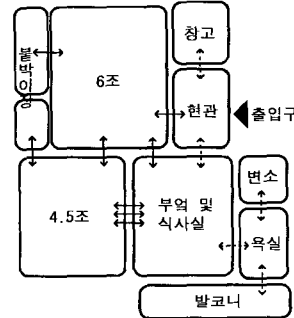
	51-C형	55-4N-2DK
기관 및 사용용도	건설성 공영주택 51년도 표준설계	일본주택공단 55년도 표준설계
주동구성	3·4층 규모의 중복도형	4층 규모의 중복도형
면적	35.52m ² (약10.76평)	42.81m ² (약12.97평)
공간구성	2DK형	2DK형

2.2. 51-C형 표준설계의 평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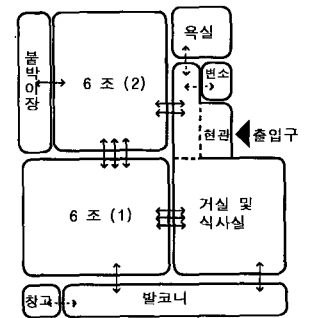
<그림 3>의 평면과 <그림 4>의 공간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51-C형 표준설계의 공간구성은 현관, 바닥 다다미로 된 2개의 실과 마루로 된 식사실·부엌 그리고 위생공간 및 외부의 발코니로 구분된다.

공간은 전용화 되어 가족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을 위한 공간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사실·부엌은 가족공동생활의 공간으로 분리되며 개인실은 사적인 공간이 된다. 현관부분은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창고가 있으며 앞쪽의 6조 실과 왼쪽의 식사실·부엌과는 문으로 연결되며 좁고 폐쇄적이다.



<그림 4> 51-C형 표준설계 공간구성도



<그림 5> 55-N형 표준설계 공간구성도

가족공동생활의 공간인 식사실·부엌을 살펴보면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여 각 실과 연결되어있다. 면적은 약2평 정도의 규모로 싱크대가 설치되어있다. 이 공간에서는 찬장 등 부엌에 필요한 가구를 배치해도 식사를 하기에는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당시의 제안이었던 2개의 개인실은 양실 모두 취침의 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식사실·부엌을 마련하여 식사 장소 확보10)라는 점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화된 독립적인 식사실·부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각 실을 연결해주는 복도의 기능과 가사정도를 할 수 있는 서구화된 부엌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사적 공간인 2개의 실에 관해 살펴보면 부엌·식사실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6조(1)의 다다미실과 남쪽에는 4.5조의 다다미실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6조의 다다미실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창문, 왼쪽으로는 1조 규모의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으로는 현관, 아래로는 식사실·부엌 그리고 4.5조의 다다미실과는 미닫이문

9)日本住宅公團20年史委員會, 日本住宅公團史, 日本住宅公團, 東京, 1981, p.137

10)鈴木成文, Op. Cit., p.120

11)일반적으로 1조(帖)의 넓이는 1800mmx900mm, 9.72m²

으로 연결되어 각각 다른 3개의 공간과 연관성을 갖은 것이 특징이다. 4.5조의 다다미실은 남쪽에는 창문 그리고 북쪽에는 0.5조의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6조의 다다미실과 1모듈¹²⁾의 후스마(襖·미단이문 이하 미단이문으로 표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른쪽의 식사실·부엌과는 3모듈의 미단이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6조의 다다미실과 4.5조의 다다미실은 상호 1모듈의 후스마(미단이문)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방법은 전통주택의 츠즈끼마자시키(續き間座敷:연속된 다다미실)와 성격이 다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으로서 어중간하다. 이는 계획당시 각각의 실은 침실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과 실 상호의 사이에 벽을 마련¹³⁾한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다.

전후 부흥기 당시는 가족의 구성인원이 많았기에 1개실에서 가족전원이 취침하는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도 2개의 실은 독립된 취침공간이 되도록 계획(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의 분리)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즉 가족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개인실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12평 규모에 확보된 2개실은 사실상 개인실이라기보다는 다목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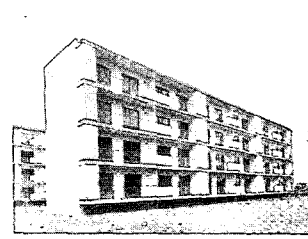
위생공간인 화장실, 세면실 겸 샤워실은 부엌의 한쪽에 모여 있으며 서비스 발코니와 연결된다. 이러한 위생공간은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서비스 부분으로 서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1-C형 표준설계는 주거자의 요구에 기초를 두어 그 요구의 동향을 반영해 주택을 만든다는 생각의 실현으로서 높게 평가¹⁴⁾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에서 전통성에 관한 배려, 전통의 존중보다는 생활의 넓은 습관을 버리고 서구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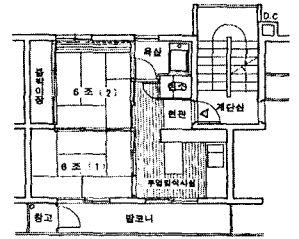
2.3. 55-N형 표준설계의 평면 분석

일부주택공단의 55-N형 표준설계는 앞에서 논했던 51-C형과 같은 2DK형식이다. <그림 6>의 평면도와 <그림 5>의 공간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구성은 바닥이 마루로 된 현관, 식사실·부엌과 바닥이 다다미로 된 2개의 실, 그리고 위생공간 및, 외부의 서비스 발코니로 나누어진다.

현관 부분은 좁은 복도를 포함해 화장실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사실·부엌과는 출입구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현관 부분이 바로 식사실·부엌과 연결된 점은 51-C형의 폐쇄된 현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진 1> 55-N형 외관



<그림 6> 55-N형 평면도



<사진 2> 55-N형 부엌·식사실



<사진 3> 부엌·식사실 사용 장면

식사실·부엌은 51-C형과 비교해 보면 51-C형에서 단점인 협소한 면적을 확대하여 식사실의 기능을 보완하였다. <사진 1>에서 볼 수 있듯이 식사용 테이블과 의자의 비치¹⁵⁾, 싱크대, 찬장등이 설비된 서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생공간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불박이의 찬장으로 현관부분을 막고 있어 식사실·부엌 기능을 한정된 독립된 공간을 의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더욱더 서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개의 개인실은 북쪽에 4.5조의 다다미실과 남쪽에 6조의 다다미실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에 위치한 4.5조의 다다미실은 51-C형에 비해 규모가 작아졌으며, 불박이장이 1.5조로 컸다. 현관부분과 2모듈의 후스마로 연결되며, 남쪽의 6조 다다미실과는 3모듈의 후스마로 연결된다. 한편, 남면한 6조의 다다미실은 규모가 51-C형의 4.5조에서 1.5조 넓어졌으며 불박이장이 없어졌다. 2개실은 상호간에 3모듈의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51-C형과 비교해 상호간의 연결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개인실의 프라이버시가 약해졌음을 암시하며 또한, 전통적인 츠즈끼마자시키(續き間座敷:연속된 다다미실)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55-N형 표준설계는 51-C형에 비교해 보면 2개의 개인실은 전통적인 요소가 강해졌으며 반면, 식사실·부엌의 공간은 서구적인 요소가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후 주택건설의 목표 중 하나인 불연집합주택 계획당시, 근대화된 합리적인 생각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주거 계획에 제공된 과제는 취침공간과 식사공간을 분리하는 것, 다음은 부모와 자식의 취침공간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의 실에서 다양한 기능의 생활 행위를 하여온 전통적인 상태를 정리하여 서구화된 즉, 생활기능별 공간을 분리하려고 한 것이었다.

12) 일반적으로는 1枚(1매)이며 폭은 900mm 정도이며 후스마의 개수를 의미함.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듈로 표기함.

13) 鈴木成文, Op. Cit., p.120

14) 日本建築學會,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東京, 1972, p.1286

15) Ibid., p.108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생활방법을 제안하였다고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공간의 한계를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다.

3. DK형 표준설계 공간의 특징

3.1. 실 기능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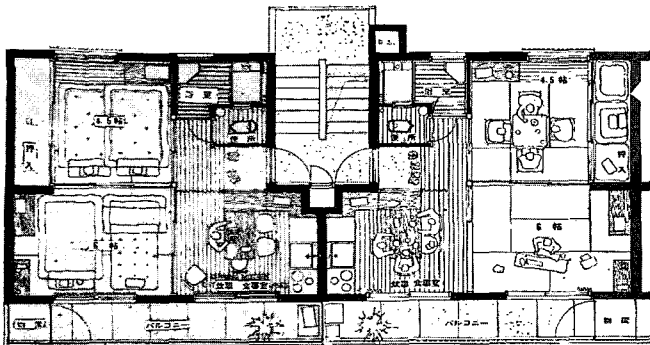
(1) 식사실·부엌

생활방식이 입식의 경우, 가구인 의자, 탁자서부터 침대 등 생활행위에 응하여 가구가 정비되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실의 사용 용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실의 기능이 명확하게 됨으로써 생활 행위에 따라서 공간을 바꾼다. 즉, 완전한 독립된 실로 이루어진 서구의 부엌 또는 식사실은 각각의 실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51-C형, 55-N형과 같은 표준설계의 식사실·부엌의 공간을 살펴보면 기능적으로는 식사와 주부의 가사 공간이지만 서양에서의 독립된 공간이 아닌 열려있는 공간구성이다. 즉, 다른 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주거에서 식사실·부엌의 역할은 주부의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일상생활에서 가사노동 등 주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컸으며 그 주된 가사노동의 장소가 식사실·부엌이며 공간적으로 주택내부의 모든 공간과 연결이 가능하며, 감독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개인실을 연결해주는 단순히 통로 혹은 복도적인 공간이 아닌 내부공간의 중심적인(core)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4.5조 및 6조 다다미실

표준설계의 실의 배치는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을 중심으로 나누어졌으며, 개인실인 4.5조의 다다미실과 6조의 다다미실은 전통적인 주택의 접객용 실과는 기능이 다른 독립된 취침의 공간이 되었다. 취침 시에는 부부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6조의 다다미실과 4.5조의 다다미실에서 취침했을 것이다. 하지만 10-13평정도 규모의 표준설계의 주택에서는 생활을 하기위한 공간의 다기능 즉, 개인을 위한 독립된 사적인 공간과 가족공동의 공적인 공간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표준설계 주택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다다미실이 차지하는 공간적 비율이 높은 점을 생각한다면 다다미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7> 일본주택공단의 55-N형 표준설계 공간 사용 이미지

실제로 <그림 7>16)에서 볼 수 있듯이 밤과 낮 시간의 공간 활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진 4,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침 이외의 기능으로서 북쪽에 위치한 4.5조의 다다미실은 가족실(차실), 접객실등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6조의 다다미실도 주부의 가사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쪽에 위치한 6조의 다다미실은 식사실·부엌과 인접한 점, 51-C형의 4.5조의 넓이에서 6조로 넓어진 점, 남면한 점 등으로 볼 때, 가족공동의 실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부부의 취침공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북쪽의 4.5조의 다다미실은 현관부분에 인접한 점, 51-C형의 6조실에서 면적이 4.5조로 축소된 점¹⁷⁾ 등 접객공간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자녀의 취침공간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개인실들은 시간대와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 그 공간의 기능이 다양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원인으로 이제까지의 다다미의 좌식은 가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 방법이었으며, 생활 행위에 응하여 물건을 구분하여 사용했으며, 하나의 실을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다미의 좌식 생활은 일본주택의 장점인 다다미실의 전용성¹⁸⁾ 즉, 전통적인 주거양식을 반드시 계승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흔적과 함께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절충된 공간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사진 4> 4.5조의 가족실



<사진 5> 6조의 접객실

3.2. 실의 경계와 연관성

<사진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식사실·부엌의 공간과 남면한 다다미실은 51-C형, 55-N형에서 공통적으로 3모들의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51-C형의 경우 남면한 4.5조의 다다미실과 식사실·부엌공간

16) <그림 3>은 1955년-6년 일본주택공단의 연보에서 입주자 대상의 안내책자의 일부.

17) 당시 일본주택공단은 표준설계는 물론 단지의 구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단지 내의 커뮤니티를 중요시하였다. 커뮤니티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서 집회소를 계획하여, 주민의 공동생활의 장소로 이용됨. 즉 주택내부의 다인수 접객행위의 축소를 가져왔다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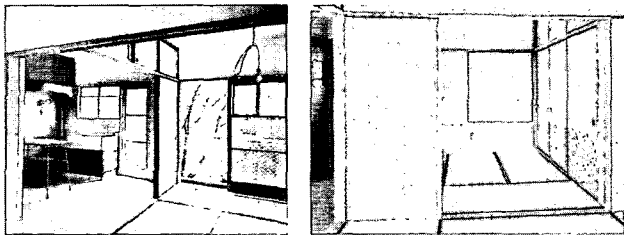
18) 鈴木成文, 住まいの計画-住まいの文化, 彰國社, 東京, 1988, p.22

을 연결하면 하나의 가족을 위한 식사공간 또는, 가족실로서 가족공동체의 공적인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51-C형은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면적이 협소하여 실제로 4.5조의 다다미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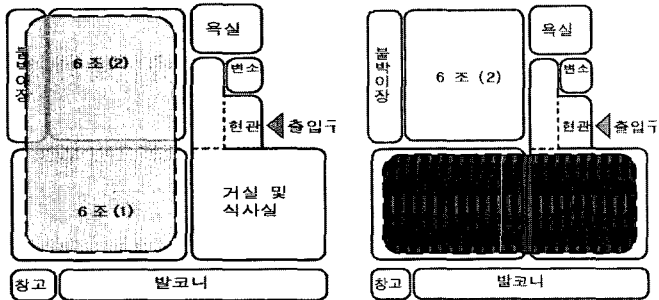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의 확대는 단순히 각 실들이 갖고 있는 기능 즉, 남면한 다다미실의 부부침실기능과 가족공동의 실 기능과 식사실·부엌의 기능의 충실뿐만이 아닌 공간의 새로운 분할을 암시해준다. 즉 이후의 표준설계에서 거실(L)공간의 탄생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4.5조의 다다미실과 6조의 다다미실을 연결하면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며, 가족실 또는 접객의 기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북쪽에 위치한 실이 접객공간이라면, 이 연결된 실은 다인수를 위한 접객(관혼상례 등)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된다.

55-N형의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51-C형에서는 볼 수 없으며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진 6> 6조실과 DK의 츠즈끼마 형식 <사진 7> 6조와 4.5조의 츠즈끼마 형식



<그림 8> 츠즈끼마자시끼 공간구성 <그림 9> 일식+서양식 츠즈끼마 공간구성

이러한 55-N형 표준설계에는 츠즈끼마자시끼 그대로의 형태 즉, <그림 8>과 같은 2개의 다다미실을 다인수 접객의 공간으로서 용도 변경한 형태 및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화된 식사실·부엌의 가족실 형태와 독립된 다다미실을 결합한 일식과 서양식의 츠즈끼마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설계의 공간구성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근대화과정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나누어 정리된다.

일본인들의 기거 양식의 전통은 다다미의 좌식이었다. 즉 바

닥 면을 행위 면으로 생활하여왔다. 실내에는 통상 아무것도 두지 않다가, 낮은 테이블을 두는 정도로, 칸막이의 후스마(襖: 미닫이문)는 통상은 열어 놓으며 필요에 따라 닫고 생활한다. 다다미의 좌식은 다양한 목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으며, 공간에 다양한 융통성을 준다.

생활환경 중 변화된 행위는 가사노동이라 할 수 있다. 가사작업의 종류와 작업 종사자의 동작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치밀한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가족 중에서 여성의 지위의 변화와도 관계된다. 남녀가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사회적인 입장과 동시에 가족 중에서의 권리도 획득하게 되었다. 가족에서 권리의 소유는 생활의 모든 면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행위와 여성의 지휘 향상은 주거가 가족이 생활하기 편한, 주부로 하여금 일하기 쉬운 공간이 되도록 사회에 요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 계획을 필요하게 만들었고 그중 제일 중심과제는 주부에게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며, 주거에서의 생활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DK주택을 현실화 시켰으며 일본식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 가스, 급·배수의 설비를 완비한 것은 주거의 생활기준 조건의 만족과 연결되며 위생공간의 설비, 가사작업공간의 충실이 주거의 질을 크게 변화시켰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전통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면적에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기위해 여러 가지 공간의 활용이 있었을 것이다. 즉, DK형 표준설계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의 것과 전통적인 것의 융화와 그것으로 인한 공간의 질서가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곧 DK형 표준설계의 공간이 갖는 특징이라 하겠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공공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51-C형과 55-N형의 평면분석과 생활방식에 의한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전후 제기된 주거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오던 주거와 생활방식의 재성찰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DK형 표준설계는 당시 근대화 전개과정의 요구에 대해 새로운 생활방식의 원리 적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51-C형 표준설계는 독립적인 식사실·부엌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독립된 사적인 공간인 개인실 등 서구의 계획이론에 근접한 계획이었으며, 공간의 실제적 사용과 계획사이에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55-N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55-N형 표준설계는 개인실의 경우

19)日本建築學會, 集合住宅計畵研究史, 東京, 1989, p.15

전통적인 요소가 51-C형 보다 강하게 계획되었으며 반면, 식사실·부엌의 공간은 서구적인 요소가 강해졌다. 또한, 이러한 서구적인 공간과 전통적인 공간의 기능적인 특징을 혼합하여 생활방식에 적용되는 공간적 질서를 도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공공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일면 서구화를 지향해왔다고 보이나 일본의 고유한 주거문화체계에 따라서 근대화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면의 계획 단계에서는 DK공간을 포함한 공·사실 분리형 등 전반적으로는 공간의 폐쇄화, 기능분화 등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적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통적 요소의 지속과 그것의 근대적 변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의 공공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51-C형에서 시작되어 생활방식에 관한 원인과 문제를 제공하였고 55-N형에서 계획과 생활양식과의 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서구화를 초월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즉, 일본화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DK형 표준설계를 연구한 계획자들의 고민과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인은 본래 외래문화를 일본화 하는 것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민족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인의 전통적인 문화적 태도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서양 통합의 주거와 주생활이 주문화로서 잘 다듬어 진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일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 결과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초기의 국민주택과 비교 등, 한국적 상황과 비교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西山夕日三, 住まい考今學-現代 日本現代住宅史, 彰國社 東京, 1989
2. 住宅問題研究所, 住宅問題-日本の現状と分析, 相模書房版 東京, 1951
3. 山口廣, 新建築學大系5: 近代現代建築史, 彰國社 東京, 1993
4. 西山夕日三, 住宅計劃, 勁草書房, 東京, 1967
5. 復興住宅建設作成 基準委員會, 復興住宅建設作成基準 東京, 1946,
6. 建設省住宅局監修, 日本の住宅と建築, 日本住宅協會 東京, 1990
7. 日本住宅公團20年史 委員會, 日本住宅公團史, 日本住宅公團 東京, 1981
8. 浜口陸一, 建築學大系6: 現代建築史, 彰國社, 東京, 1958
9. 西山夕三, 住宅論, 勁草書房, 東京, 1968.01
10. 鈴木成文, 住まいを讀む-現代日本住居論, 建築資料研究社 東京, 1999.02
11. 鈴木成文, 住まいの計畫-住まいの文化, 彰國社 東京, 1988.11
12. 矢代眞己, Ten Plus One(言説としての日本近代建築), INAX 出版, 東京, 2000.12
13. 村松貞次郎, 近代建築史概説, 彰國社, 東京, 1978.10
14. 日本建築學會,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東京, 1972
15. 日本建築學會, 集合住宅計畫研究史, 東京, 1989.07

<접수 : 2006. 4. 30>